

#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양계민\*\*

본 논문은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 그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졌고, 독일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졌다. 또한, 독일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부담의 인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의 경우는 독일통일의 사회적 부담과 갈등요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40대 이상의 경우는 독일통일의 사회적 안정 및 발전요인과 사회적 부담 및 갈등 요인 모두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통일교육시 독일통일의 긍정적 측면인 안정 및 발전요인과 사회적 부담 및 갈등요인을 적절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 독일통일, 통일교육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4S1A3A204357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문제제기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남북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남북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진전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변화는 일반국민의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의 59.8%로 2007년 이후 가장 높고, 2017년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다소 모호한 프레임으로 구체적인 통일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때에 비하여 최근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이 모색됨에 따라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특히 동 연구에 나타난 20대와 30대의 인식이 대폭 개선된 결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실질적 기대가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sup>2)</sup>

사실상 한국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다만, 통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도약을 견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과도한 통일비용으로 남한경제가 피폐해질 것이

- 
- 1) 홍석훈, “통일인식의 변화와 의의,” 『일반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대북정책 2018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2018), 23쪽.
  - 2) 정동준·김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2018통일 의식조사』(2019), 34쪽.

리는 우려의 입장이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빨리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가능한 서둘지 말고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자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sup>3)</sup> 이는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할지라도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현실적으로 긍정적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 KINU통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2018년에 들어 크게 반등하였고,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국가차원과 개인차원 모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 판단을 하는 집단의 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는 등 긍정적 태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게 됨에 따라 그 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통일 이후의 계층 및 이념 갈등 등의 문제를 현실적인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sup>4)</sup>

한국인이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 변화에 단순히 긍정적인 낙관론만을 지니지 않은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큰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독일통일에 대한 논의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염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고, 따라서 준비 없이 서둘러서

3) 서현진,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2017), 94쪽.

4) 구분상, “통일인식의 변화와 의의,” 『일반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대북정책 2018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2018), 11쪽.

통일을 이루려고 할 경우 한국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혼란에 처할 것이라는 함의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통일에 대하여 한국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연구를 한 것은 주로 한국사회의 내적 요인의 영향이었다. 즉,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 그들이 지닌 배경 특성에 따라 통일의식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과거 통일을 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여겨졌던 한민족정체성과 비교적 최근 젊은 세대들의 주요 관심 요인인 통일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기대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일의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 국민이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선행연구 분석

### 1) 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내 통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지역 등 배경변인에 따라 이루어진 분석이 대부분이고,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을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통일의 필요성

이나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5)</sup> 예를 들면, ‘젊은 연령층의 경우 통일관련 이슈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통일 이후 계층갈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등의 결과는<sup>6)</sup> 대부분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재록과 윤향미(2015)의 연구에서는 20~30대 젊은 층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이 통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sup>7)</sup> 한석지(2016)의 연구에서도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소극적 인식인 청소년층 등 젊은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sup>8)</sup> 2017년도 KBS에서 수행한 국민통일의식조사<sup>9)</sup>에서도 40대 이상이 30대 이하인 집단에 비해 통일에 대하여 ‘관심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진(2017) 역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대부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필요성, 북한을 한민족으로 여기는 정도 등에서 모두 연령이 낮아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고,<sup>10)</sup>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의 당위성보다는 통일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변화에 주목하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1)</sup>

5)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014년 봄호(2014), 175쪽.

6) 구분상, “통일인식의 변화와 의의,” 11쪽.

7) 오재록·윤향미, “통일의식조사를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7권 1호(2015), 113쪽.

8) 한석지, “통일대박의 조건과 전망: 국민적 통일의식 증진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2호(2016), 139쪽.

9) KBS한국방송공사, “국민통일의식조사,” 『통일방송연구』, 제30호(2017) 26쪽.

10) 서현진,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 116쪽.

11) 서현진, 위의 글, 100쪽.

통일의식에서 젊은 세대의 특성으로 보고되는 결과들은 통일의 현실적 측면에 대한 접근으로, 젊은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하여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통일이 가져 올 변화와 영향에 주목하는 현실주의적 통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sup>12)</sup> 이러한 현실주의적 통일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연구인 이내영 등(2015)의 연구에서는 기대이익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sup>13)</sup> 윤민재의 연구(2017)에서도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경우 통일에 있어서 본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서현진(2017)은 세대별로 청소년기에 받았던 통일교육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민주화 세대의 경우는 이념적 통일교육을 받은 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교육을 받은 정보화세대의 경우는 주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 통일에 대해 가장 냉담하고 통일세 부담의지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반드시 젊은 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우경봉(2017)의 연구에서도 통일로 인한 세금부담이 증가한다고 인식할수록 통일에 대한 선

12)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2014), 178쪽.

13) 이내영·조철호·정한울·허석재, 『통일인식에 대한 세대격차의 원인분석과 갈등해소를 통한 국민통합방안』(통일부 용역과제, 2015), 8쪽.

14) 윤민재,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5호(2017), 843쪽.

15) 서현진,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 122쪽.

호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sup>16)</sup> 오재록·윤향미(2015)의 연구에서도 통일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통일비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항목이었다.<sup>17)</sup> 또한 가장 최근의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의식조사에서도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는 통일의 편익이 크다고 할지라도 국민 개인의 삶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최근 국민의 통일의식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부담으로, 과거와 같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통일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통일에 대한 담론은 단일민족이나 한민족정체성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향후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독일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독일통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일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이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

16) 우경봉,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통합인문학연구』, 제9권 2호(2017), 218쪽.

17) 오재록·윤향미, “통일의식조사를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114쪽.

18) 정동준 외, 『2018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40쪽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 독일의 통일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통일 후 나타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이 남북한 통일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독일통일이 한국사회에 준 시사점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한운석(2015)은 한국인들의 경우 독일통일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남한이 서독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과 발전된 민주주의와 복지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모델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다수가 가지게 된 배경에는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sup>19)</sup> 즉,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독일통일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로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알려지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sup>20)</sup>

실제 기존의 독일통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일 후 독일이 경험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 후 독일에서 나타난 실제 현상에 대한 기술이기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보는 시각이 점차 변화되어 온 경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 15년

---

19) 한운석, “독일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제58호(2015), 333~334쪽.

20) 한운석, 위의 글, 335쪽.



까지의 시기에는 주로 막대한 세금부담과 사회적 혼란, 구 서독과 구 동독의 격차에 초점을 두고 독일통일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이정희(2000)의 저서에서는 동서독지역의 경제적 격차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후유증의 문제,<sup>21)</sup> 막대한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 구 동독 지역의 높은 실업률과 장기실업자의 증가문제, 저조한 생산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의 문제,<sup>22)</sup> 구 동독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인하여 느끼는 옛 동독시절에 대한 향수(Ostalgie)의 문제 등<sup>23)</sup>을 설명하고 있다. 이기식(2008) 역시 독일통일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구 서독인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지만 구 동독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고,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으며,<sup>24)</sup> 독일정부가 막대한 돈을 동독에 쏟아부어 해마다 독일 국내총생산의 4-5%를 동독에 제공하였고 결국 통일 이후 2005년 말까지 동독을 위해 지불된 돈이 1인당 10만 유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5)</sup> 통일 전에는 동독의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통일 후 동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여 재정부채가 증가하였고 독일이 국가부채로 허덕이고 있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sup>26)</sup> 이는 손기웅(2009)의 저서에서도 일관되게 제시되는 결과로, 통일 전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것으로 생

---

21) 이정희, “독일의 통일과 유럽통합,”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이야기 2: 통일독일의 사회와 현실』(2000), 319~320쪽.

22) 이정희, 위의 글, 321쪽.

23) 이정희, 위의 글, 322쪽.

24)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5쪽.

25) 이기식, 위의 책, 123쪽.

26) 이기식, 위의 책, 128~129쪽.

각했으나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더 증가하여 독일정부가 각종 세금에 연대추가징수금 7.5%를 덧붙여 징수한 결과 매달 3.5%의 세금인상효과를 초래하였고,<sup>27)</sup> 통일이 15년 지난 시점에서는 경제적 재난으로 평가되고 있다고<sup>28)</sup>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 후 독일의 세금부담과 지역 간 격차,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시각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독일통일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난 후 독일 통일 후 20년 후부터는 다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윤덕룡(2011)은 독일통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 후 서독으로 이전된 통일비용이 연평균 1,000억 유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서독지역 GDP의 5% 수준으로, 높아진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은 서독주민들에게는 분노를,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을 일으켜서 동서독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현상을 제시하면서,<sup>29)</sup> 독일통일 초기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였으나 통일 후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 발생의 문제가 알려지면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0)</sup>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통일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한 세대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통일비용이 나가

27)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서울: 늘봄플러스, 2009), 272~274쪽.

28) 손기웅, 위의 책, 255쪽.

29) 윤덕룡, “독일통일 20년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변화와 통일비용,” 황병덕 외 엮음,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KINU 통일대계연구』, 2010-03)(서울: 늘봄플러스, 2011), 252~289쪽.

30) 윤덕룡, 위의 글, 287쪽.

는 대신 더 이상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동서독 갈등이나 군비경쟁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고, 오히려 통일 후 확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유럽경제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sup>31)</sup>는 긍정적 측면으로 시각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손선홍(2016)의 저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통일 후 초기에는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독일 내 우려의 목소리가 강했으나 점차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통일 초기에는 통일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점차 통일로 인한 비용보다도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부채는 통일을 하지 않았어도 증가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sup>32)</sup> 통일 직후 독일의 경제는 저성장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경제개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독일의 경제력은 더 크고 견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sup>33)</sup> 또한 통일 후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현재는 EU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영향력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4)</sup> 결국 독일인들은 통일이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5)</sup> 최근 통일 30주년을 맞은 독일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경제성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sup>36)</sup> 통일 이후 더

---

31) 윤덕룡, 위의 글, 286쪽.

32)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2016), 310쪽.

33) 손선홍, 위의 책, 312쪽.

34) 손선홍, 위의 책, 313쪽.

35) 손선홍, 위의 책, 313쪽.

크고 강력해져서 정치·경제·군사 측면에서 모두 거대한 나라로 재탄생한 유럽의 지도적 권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7)</sup>

결론적으로 초기에는 독일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많이 드러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 통일비용 등을 극복하고 난 후의 독일의 위상에 대한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국민들이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국민들이 독일의 통일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것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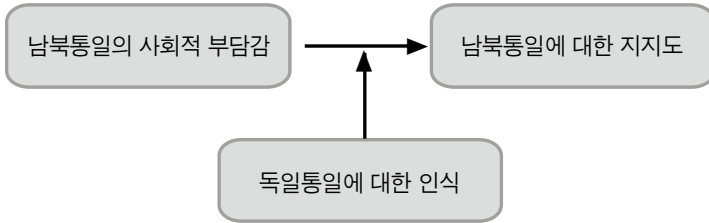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독일통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배경변인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독일통일에 대한 인

---

36) 2016년 『동아일보』 기사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독일 통일은 필연이지만 후회없었을까”라는 기사에서 동독인의 불만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동독은 통일 후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37) 『시사인』, “통일30주년 독일은 지금”(2019.7.31.).

<그림 3> 본 연구의 조절효과 모형



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 연구문제 1.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3.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은 조절효과를 지니는가?

#### 4.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2018년 6월 전국 17개 시도지역

<표 1> 조사대상자의 배경적 특성

범주			범주			
		빈도(%)			빈도(%)	
성별	남	500(50.0)	학력	초등학교졸업 이하	8( .8)	
	여	500(50.0)		중학교졸업	10( 1.0)	
연령	20대	200(20.0)		고등학교 졸업	191(19.1)	
	30대	200(20.0)		2~3년제 대학 졸업	143(14.3)	
	40대	200(20.0)		4년제 대학 졸업	530(53.0)	
	50대	200(20.0)		대학원졸업(석사 이상)	115(11.5)	
	60대 이상	200(20.0)		기타	3( .5)	
거주지역	서울	360(36.0)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69( 6.9)
	부산	71( 7.1)			200-300만원 미만	147(14.7)
	대구	39( 3.9)			300-400만원 미만	168(16.8)
	인천	67( 6.7)	400-500만원 미만		149(14.9)	
	광주	28( 2.8)	500-600만원 미만		179(17.9)	
	대전	29( 2.9)	600-700만원 미만		87( 8.7)	
	울산	21( 2.1)	700-800만원 미만		69( 6.9)	
	세종	3( .3)	800-900만원 미만		44( 4.4)	
	경기	232(23.2)	900-1000만원 미만		28( 2.8)	
	강원	13( 1.3)	1000만원 이상		60( 6.0)	
	충북	15( 1.5)	가정형편	아주 어렵다	47( 4.7)	
	충남	28( 2.8)		어려운 편이다	245(24.5)	
	전북	14( 1.4)		보통이다	622(62.2)	
	전남	15( 1.5)		잘사는 편이다	79( 7.9)	
	경북	28( 2.8)		아주 잘산다	7( .7)	
	경남	29( 2.9)	전체		1,000(100)	
	제주	8( .8)				

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총 1,000명이었다. 그중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0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각 200명씩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23.2%), 부산(7.1%), 인천(6.7%) 등의 순서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19.1%였으며, 2~3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4.3%, 대학원졸업자가 11.5%, 중학교 졸업자가 1.0%,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0.8%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200만 원 미만이 6.9%,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14.7%,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16.8%,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14.9%,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미만이 17.9%,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이 6.9%였고, 8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이 4.4%, 900만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이 2.8%였으며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경제수준과는 별개로 주관적 경제수준인 가정형편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7%,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5%,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 아주 잘산다고 응답한 비율은 0.7%였다.

## 2) 조사내용

### (1)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배경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월평균소득수준, 주관적인 경제수준 등이었다.

## (2)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은 ‘남북통일이 전반적으로 남한에 얼마나 이익 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1)’, ‘부담보다는 이익이 다소 큰 편일 것이다(2)’, ‘부담과 이익이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3)’, ‘이익보다는 부담이 다소 큰 편일 것이다(4)’, ‘이익보다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5)’ 등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북통일이 사회적 측면에서 이익보다는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3)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귀하께서는 남북한 통일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1)’에서 ‘매우 지지한다(5)’까지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 (4)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은 독일통일이 서독 출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독일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적 발전, 정치적 발전, 군사력 증강, 국제적 위상, 사회적 안정, 개인적 삶의 질, 실업률, 빈부격차, 국가재정, 세금부담, 지역갈등, 범죄율, 주택문제 등 총 13가지 영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방향(1)’부터 ‘매우 부정적인 방향(5)’까지 총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석 시에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안정 및 발전요인(국제적 위상, 정치적 발전, 사회적 안정, 개인적 삶의 질, 경제적 발전, 군사력 증강)과 부담 및 갈등요인(세금부담, 빈부격차, 지역갈등, 국가재정, 범죄율, 주택문제, 실업률)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50~.73까지였고, 신뢰도는 .82였다. 두 번째 요인인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63~.79까지였고 신뢰도는 .91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이때 안정 및 발전요인이나 부담 및 갈등요인 등 두 요인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독일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결과

### 1) 배경변인에 따른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과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인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서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경제수준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각 배경변인에 따른 변인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이때 배경변인 중 학력수준은 원래 7개 범주로 조사되었으나 자료의 간명성을 위하여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졸’ 등 6개 범주로 재구성하였고, 주관적 경제수준인 가정형편 역시 원래는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잘사는 편이다’, ‘아주 잘산다’의 총 5개 범주를 ‘어렵다’, ‘보통이다’, ‘잘산다’의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전체		3.33(1.16)	3.62(1.17)
성별	남자	3.13(1.26)	3.83(1.19)
	여자	3.52(1.09)	3.42(1.13)
	<i>t</i>	-5.17***	5.61***
연령	20대	3.44(1.06)	3.26(1.05)b
	30대	3.42(1.16)	3.39(1.21)b
	40대	3.14(1.29)	3.68(1.17)a
	50대	3.29(1.18)	3.89(1.16)a
	60대	3.36(1.25)	3.91(1.14)a
	<i>F</i>	2.07	12.80***
학력수준	중졸 이하	3.61(.92)	3.00(1.09)b
	고졸	3.32(1.13)	3.55(1.19)a
	전문대졸	3.38(1.15)	3.49(1.11)a
	4년제대졸	3.36(1.19)	3.65(1.16)a
	대학원졸	3.06(1.22)	3.92(1.22)a
	<i>F</i>	1.89	3.88**
주관적 경제수준	어렵다	3.40(1.24)	3.53(1.26)
	보통이다	3.29(1.16)	3.68(1.12)
	잘산다	3.31(1.28)	3.56(1.23)
<i>F</i>		.87	1.76

\*\*  $p < .01$ , \*\*\*  $p < .001$ , Duncan: a>b.

3개 범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서 성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남자들의 평균값이 여성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경우 연령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값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집단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에 비하여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서만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표 2>에 나타난 평균값을 보면 연령집단과 유사하게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사후검증분석 결과 중졸 이하와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인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인에 따라 살펴보기 전에 우선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와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본 문항이 5점 척도임을 생각해 볼 때 중간 점수인 3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3점은 중간이고, 그 이하는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안정 및 발전요인으로 이 요인에 포함된 항목의 평균값은 모두 3점이 훨씬 넘었다. 이 중 긍정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국제적 위상이었다. 다음이 정치적 발전, 군사력 증강, 사회적 안정, 경제적 발전, 개인적 삶의 질 등의 순서였다. 그에 비해 두 번째 요인은 부담 및 갈등요인으로 이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빈부 격차, 지역갈등, 범죄율, 국가재정, 주택문제, 실업률 등의 순서였다. 이 중 국가재정, 주택문제, 실업률의 경우는 평균값이 3점 이상이었으나 요인분석결과 부정적 측면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다음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의 각 문항별로 성별 차이와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 차이를 보면, 안정 및 발전요인 중에서 국제적 위상에 대하여 성별차이가 있었고 개인적 삶의 질에서도 성별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의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적 위상과 개인적 삶의 질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이 높았다. 나머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에서도 평균 자체는 일관되게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았으나 독일 통일 후 세금부담과 지역갈등, 그리고 주택문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일통일의 영역별 인식의 요인분석, 평균(표준편차) 및 신뢰도

요인	내용	요인부하량	평균(표준편차)	$\alpha$
안정 및 발전	국제적 위상	.726	4.24( .85)	.82
	정치적 발전	.698	3.79( .95)	
	사회적 안정	.612	3.71(1.01)	
	개인적 삶의 질	.595	3.43( .94)	
	경제적 발전	.557	3.56(1.09)	
	군사력 증강	.495	3.75( .88)	
부담 및 갈등	세금부담	.793	2.67(1.12)	.91
	빈부격차	.762	2.80(1.05)	
	지역갈등	.754	2.84(1.02)	
	국가재정	.739	3.00(1.11)	
	범죄율	.720	2.88( .97)	
	주택문제	.706	3.00( .99)	
	실업률	.634	3.11(1.03)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영역	문항	남자	여자	$t$
안정 및 발전	국제적 위상	4.33( .83)	4.14( .86)	3.46***
	정치적 발전	3.83( .98)	3.75( .91)	1.22
	사회적 안정	3.75(1.04)	3.68( .98)	1.18
	개인적 삶의 질	3.49( .97)	3.36( .90)	2.11*
	경제적 발전	3.62(1.13)	3.51(1.04)	1.60
	군사력 증강	3.78( .92)	3.73( .84)	.90
부담 및 갈등	세금부담	2.79(1.18)	2.54(1.03)	3.54***
	빈부격차	2.85(1.12)	2.75( .97)	1.46
	지역갈등	2.90(1.06)	2.77( .96)	1.96*
	국가재정	3.01(1.17)	2.99(1.04)	.32
	범죄율	2.91( .99)	2.84( .96)	1.21
	주택문제	3.08(1.00)	2.91( .96)	2.62**
	실업률	3.14(1.06)	3.07(1.00)	1.05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연령별 차이

영역	문항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F
안정 및 발전	국제적 위상	4.07(.87)de	4.09(.95)cd	4.25(.83)bc	4.33(.83)ab	4.46(.70)a	7.42***
	정치적 발전	3.60(1.00)b	3.57(1.00)b	3.87(.86)a	3.91(.94)a	3.96(.89)a	7.08***
	사회적 안정	3.56(1.00)	3.66(1.10)	3.73(1.04)	3.84(.90)	3.77(.98)	2.09
	개인적 삶의 질	3.30(.97)	3.37(.99)	3.44(.91)	3.53(.94)	3.47(.89)	1.62
	경제적 발전	3.48(1.11)b	3.38(1.13)b	3.71(1.03)a	3.63(1.09)a	3.60(1.05)ab	2.77*
	군사력 증강	3.80(.88)	3.71(.91)	3.79(.86)	3.77(.85)	3.69(.91)	.62
부담 및 갈등	세금부담	2.59(1.08)	2.69(1.10)	2.69(1.18)	2.70(1.09)	2.65(1.14)	.29
	빈부격차	2.75(1.12)	2.85(1.11)	2.78(1.00)	2.82(1.00)	2.79(1.04)	.24
	지역갈등	2.71(1.02)	2.81(1.06)	2.85(1.01)	2.92(.98)	2.89(1.01)	1.22
	국가계정	2.87(1.05)	2.96(1.14)	3.18(1.15)	3.02(1.05)	2.97(1.13)	2.00
	범죄율	2.84(1.01)	2.90(1.01)	2.84(.94)	2.87(.96)	2.94(.97)	.32
	주택문제	2.98(.99)	2.97(1.01)	3.03(.97)	2.98(1.01)	3.04(.95)	.20
	실업률	3.10(1.06)	3.10(.97)	3.15(1.05)	3.11(1.01)	3.08(1.06)	.13

\*  $p < .05$ , \*\*\*  $p < .001$ , Duncan:  $a > b > c > d > e$ .

다음으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적 위상과 정치적 발전 그리고 경제적 발전 등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하여 연령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위상의 경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정치적 발전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유사한 수준이고 40대 이상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집단에 비해 40대 이상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적 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30대 집단에 비해 40대 이상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다른 문항에 대해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학력수준별 차이

영역	문항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졸	F
안정 및 발전	국제적 위상	4.21( .86)b	4.09( .91)b	4.25( .85)ab	4.42( .75)a	3.25*
	정치적 발전	3.84( .90)	3.65( .96)	3.79( .93)	3.87(1.09)	1.51
	사회적 안정	3.61(1.01)	3.62(1.03)	3.77( .98)	3.79(1.07)	1.99
	개인적 삶의 질	3.44( .93)	3.23( .98)	3.47( .91)	3.46(1.00)	2.41
	경제적 발전	3.62(1.02)	3.38(1.12)	3.62(1.06)	3.45(1.25)	2.39
	군사력 증강	3.70( .86)	3.73( .89)	3.77( .88)	3.79( .94)	.39
부담 및 갈등	세금부담	2.75(1.09)	2.59(1.12)	2.69(1.13)	2.54(1.13)	1.08
	빈부격차	2.79(1.02)	2.72(1.02)	2.84(1.07)	2.74(1.11)	.67
	지역갈등	2.90( .96)	2.70( .96)	2.86(1.03)	2.79(1.13)	1.21
	국가제정	3.11(1.06)	2.90(1.14)	3.01(1.10)	2.92(1.19)	1.21
	범죄율	2.87( .92)	2.84( .99)	2.92( .99)	2.74( .97)	1.19
	주택문제	3.02( .94)	3.02(1.00)	2.99( .98)	2.99(1.08)	.07
	실업률	3.03(1.01)	3.05( .99)	3.18(1.04)	3.03(1.05)	1.42

\*  $p < .05$ , Duncan: a>b.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연령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독일통일의 각 영역에 대한 학력수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적 위상에 대한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나머지 다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의 경향을 보면 전문대졸업자 이하와 4년제 대학교 이상인 집단의 차이로,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인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수준의 요인분석 결과를 근거로 안정 및 발전요인과 부담 및 갈등요인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7>). 우선 성별 차이를 보면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요인과 부담 및 갈등요인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긍정적으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차이

배경변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안정 및 발전	부담 및 갈등
전체		3.73(.70)	2.88(.82)
성별	남자	3.79(.71)	2.93(.87)
	여자	3.67(.67)	2.82(.76)
	<i>t</i>	2.43*	2.03*
연령	20대	3.63(.68)bc	2.82(.86)
	30대	3.60(.79)c	2.87(.85)
	40대	3.77(.65)ab	2.92(.85)
	50대	3.82(.69)a	2.91(.80)
	60대	3.82(.63)a	2.87(.77)
	<i>F</i>	4.09**	.38
학력수준	중졸 이하	3.65(.66)	2.98(.56)
	고졸	3.74(.68)	2.88(.76)
	전문대졸	3.59(.74)	2.83(.83)
	4년제대졸	3.75(.67)	2.90(.83)
	대학원졸	3.80(.77)	2.83(.90)
	<i>F</i>	1.73	.30
주관적	어렵다	3.70(.69)	2.81(.83)
경제수준	보통이다	3.75(.69)	2.91(.80)
	잘산다	3.73(.70)	2.87(.95)
	<i>F</i>	.40	1.16

\*  $p < .05$ , \*\*  $p < .01$ , Duncan:  $a > b > c$ .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남자들이 긍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에 비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안정 및 발전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



가할수록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령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학력수준과 주관적·경제적 수준에 따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인식,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및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앞의 연구문제 3에 제시된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의 식과 관련하여 세대 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포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집단끼리 분석을 하는 것이 자료의 이해와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에서 좀 더 유의미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세대별로 두 집단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 측면과 부담 및 갈등 측면에 대한 인식 등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표 8>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졌고, 독일통일의 두 가지 측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 또한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세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남북통일에 대한

<표 8>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의 부담에 대한 인식,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관계: 30대 이하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 안정 및 발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 부담 및 갈등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1.00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	-.41**	1.00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안정 및 발전	.48**	-.35**	1.00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부담 및 갈등	.19**	-.37**	.64**	1.00

\*\*  $p < .01$ .

<표 9>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의 부담에 대한 인식,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관계: 40대 이상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안정 및 발전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부담 및 갈등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1.00			
남북통일의 부담 인식	-.53**	1.00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안정 및 발전	.44**	-.43**	1.00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부담 및 갈등	.27**	-.38**	.59**	1.00

\*\*  $p < .01$ .

부담과 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관계는 40대 이상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일 통일의 안정 및 발전측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록 남북통일의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성 역시 40대 이상에서 강

하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측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은 30대 이하 집단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 4) 남북통일의 부담인식이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의 조절효과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남북통일에 대한 부담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이때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한 평가와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한 평가로 각각 나누어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째로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독일통일의 사회적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남북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한 인식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진 반면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적 측면 측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역시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독일통일의 사회적 부담과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통일의 부담은 남북통

<표 10> 30대 이하의 남북통일의 부담인식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안정 및 발전측면

변인	모델 1		모델 2	
	$\beta$	$t$	$\beta$	$t$
남북통일의 부담(A)	-.27	-5.52***	-.27	-5.49***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안정 및 발전측면(B)	.39	7.88***	.37	7.29***
A×B			.04	.84
$F$	70.16***		46.97***	
$R^2$	.292***		.291***	
$\Delta R^2$	-		-.001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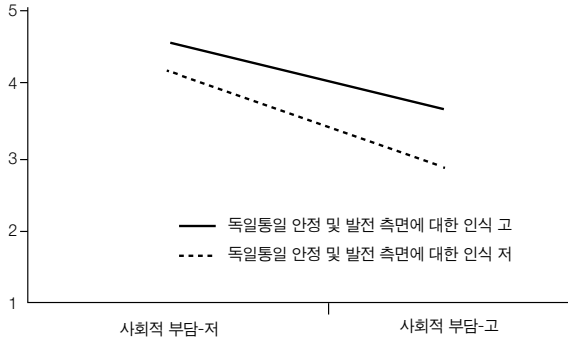
<표 11> 30대 이하의 남북통일의 부담인식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부담 및 갈등 측면

변인	모델 1		모델 2	
	$\beta$	$t$	$\beta$	$t$
남북통일의 부담(A)	-.42	-7.93***	-.42	-8.01***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부담 및 갈등 측면(B)	.03	.57	.01	.24
A×B			.13	2.51*
$F$	38.55		28.21	
$R^2$	.189***		.205***	
$\Delta R^2$	-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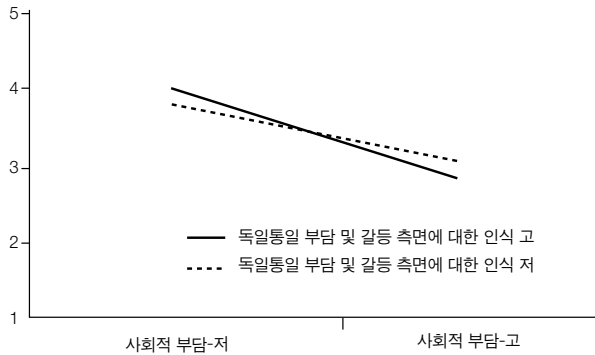
\*  $p < .05$ , \*\*\*  $p < .001$

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독일통일의 부담과 갈등요인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통일의 부담과 독일통일의 부담과 갈등 측면에 대한 평가의 상호

<그림 2>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 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30대 이하



<그림 3>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30대 이하



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 모델에서 독일통일의 부담과 갈등 측면에 대한 인식수준이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즉, 30대 이하의 경우 통일의 사회적 부담에 대해 낮게 인식하거나 높게 인식하거나 상관없이 독일통일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의 수준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나, 사회적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 경우에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이하 집단의 경우 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높게 인식한다 하더라도 독일의 통일의 결과 중 부담 및 갈등요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통일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로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사회적 부담과 갈등에 대한 부분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동일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대 이상의 경우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과 독일통일의 사회적 안정과 발전 측면에 대한 평가 모두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독일통일의 사회적 안정 및 발전 측면에 대한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40대 이상의 남북통일의 부담인식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델 1에서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의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표 12> 40대 이상의 남북통일의 부담인식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안정 및 발전 측면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beta$	$t$	$\beta$	$t$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A)	-.43	-11.13***	-.45	-11.45***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안정 및 발전측면(B)	.26	6.73***	.25	6.58***
A×B			.09	2.47*
$F$	143.83***		98.82***	
$R^2$	.346***		.354***	
$\Delta R^2$	-		.007*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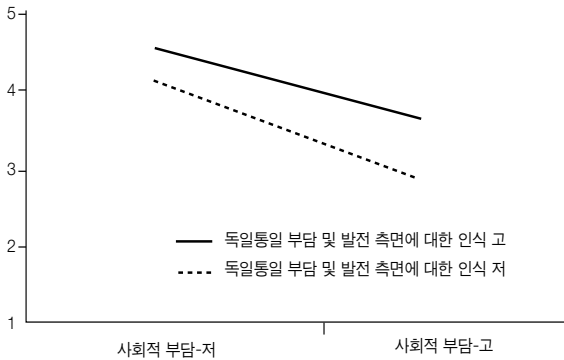
<표 13> 40대 이상의 남북통일의 부담인식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부담 및 갈등측면

독립변인	모델1		모델2	
	$\beta$	$t$	$\beta$	$t$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A)	-.51	-12.70***	-.51	-12.82***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부담 및 갈등 측면(B)	.08	1.93	.10	2.48*
A×B			.12	3.25***
$F$	107.79***		76.70***	
$R^2$	.292***		.306***	
$\Delta R^2$	-		.014***	

\*  $p < .05$ , \*\*\*  $p < .001$ .

다. 그러나 모델 2에서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하였을 때는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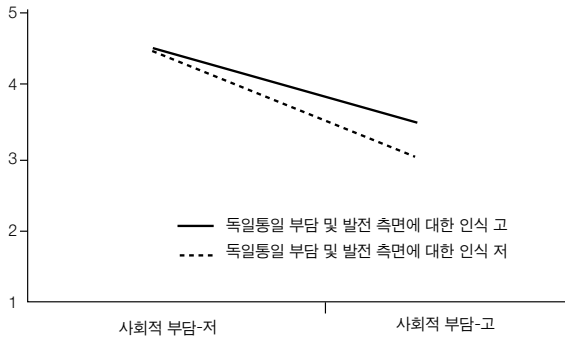
<그림 4>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 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40대 이상



40대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중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를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부담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독일 통일의 안정 및 발전 측면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는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차이를 미치지 않으나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클 때는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부정적일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이상인 경우는 통일의 사회적 부담의 수준에 따라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요인과 부담 및 갈등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30대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에서 독일통일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5> 독일통일의 부담 및 갈등 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40대 이상



## 6. 논의

본 연구는 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의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에 대해 알아보고, 독일의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수준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남북통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이 느끼고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도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2017년도 KBS에서 수행한 국민통일의식조사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up>38)</sup> 오재록·윤향미의 연구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이 통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일로 인한 비용의 문제에 대하여 남

38) KBS 한국방송공사, “국민통일의식조사,” 『통일방송연구』, 제30호(2017), 26쪽.

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sup>39)</sup>와 일관된 결과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통일에 대하여 덜 지지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더 크게 인식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로써는 설명하기 어렵고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아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성별차이를 분석만 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통일에 대해 더 소극적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의 경우 연령, 학력수준 및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의 경우는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40대 이상인 집단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학력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중졸 이하의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였으나 평균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경우 안정 및 발전요인과 부담 및 갈등요인 모두 통계적인 수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요인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높았다. 이에 비해 연령별 차이는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 학력수준이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을 각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국제적 위

---

39) 오재록·윤향미, “통일인식조사를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114쪽.

상이나 정치적 발전, 군사력 증강, 사회적 안정, 경제적 발전, 개인적 삶의 질 등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고, 실업률과 국가재정의 경우는 중간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세금부담이나 빈부격차, 지역갈등, 범죄율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독일의 국제적 위상이나 정치적 발전, 군사력 증강, 사회적 안정, 경제적 발전, 개인적 삶의 질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졌으나 동시에 세금부담이나 빈부격차, 지역갈등, 범죄 등의 문제도 동시에 경험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인들이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기존의 염려와 같이 세금부담이나 빈부격차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인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섯째,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 남북통일의 부담인식 및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과 상관없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부담을 인식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졌고, 독일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 중 독일통일의 안정 및 발전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매우 높아서 향후 통일교육의 방향에서 독일통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독일통일의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남북통일의 부담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통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한국의 남북한 통일교육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의 사회적 부담이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의 경우는 독일통일의 사회적 부담과 갈등 측면에 대한 평가만이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안정 및 발전 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는 독일통일의 사회적 안정 및 발전측면과 사회적 부담 및 갈등측면에 대한 평가 모두가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일통일의 사회적 안정 및 발전 측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회적 부담 및 갈등측면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 독일 통일의 부담 및 갈등 요인에 대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교육시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통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특히 통일의 사회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경우에는 독일통일의 다양한 긍정적 측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통일의 부정적 효과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던 막대한 세금부담의 문제가 독일통일 초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한 세대의 문제이고, 대신 더 이상 분단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군비경쟁의 부담에서 해방되었으며 안보불안의 문제가 없어지고 결국 경제적 성공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등 더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 부담 및 갈등요인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결과를 제시하는 내용 등을 통일교육의 자료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

들이 염려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하여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부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접수: 6월 25일 / 수정: 8월 11일 / 채택: 8월 12일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1) 단행본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서울: 늘봄플러스: 2009)

손선홍, 『독일통일 한국통일』(서울: 푸른길: 2016).

이기식,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이내영·조철호·정한울·허석재, 『통일인식에 대한 세대격차의 원인분석과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방안』(서울: 통일부, 2015).

임종대 외,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 독일이야기2: 통일독일의 사회와 현실』(서울: 거름, 2000).

정동준·김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2018통일 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황병덕 외 엮음, 『독일의 평화 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서울: 늘봄플러스, 2011).

#### 2) 논문

KBS한국방송, “국민통일의식조사,” 『통일방송연구』, 제30호(2017).

구본상, “통일인식의 변화와 의의,” 『[일반]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대북정책 2018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2018), 11~21쪽.

서현진,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간 통일인식 차이,”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2017), 93~127쪽.

오재록·윤향미, “통일의식조사를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7권 1호(2015), 107~129쪽.

우경봉,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통합인문학연구』, 제9권 2호(2017), 207~225쪽.

윤민재,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5호(2017), 831~850쪽.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봄호(2014), 167~206쪽.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2014), 175~195쪽.

한석지, “통일대박의 조건과 전망: 국민적 통일의식 증진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2016), 129~154쪽.

한운석, “독일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제58호(2015), 333~355쪽.

홍석훈, “통일인식의 변화와 의의,” 『[일반]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대북정책 2018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23-32(2018).

### 3) 신문

『동아일보』.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독일 통일은 필연이지만 후회 없었을까?”(2016.7.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5/96345471/1>(검색일: 2019년 7월 31일).

『시사인』, “통일30주년 독일은 지금”(2019.7.23.).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25>(검색일: 2019년 7월 31일).

# The Effect of Burden feeling of Korea Unification toward the agreement for Korea Unific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valuation of German Unification

Yang, Kyemin(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valuation of German unification toward the support attitude for Korean unifica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the higher of burden feeling of Korean unification, the lower of support for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 more positive about German unification, the lower of burden feeling of Korean unification and the higher of support for the Korean unification.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valuation of German unification were revealed in the burden & conflict factor in the both groups of 20s-30s and 40s over, but the stability & development factor was the moderator for the only group of 40s over.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were suggested.

Keywords: the burden feeling of Korean unification, Korea unification, German unification, Unification education